



- 자연환경 보전정책을 중심으로 -

# 한국의 환경정책과 지역환경 협력방안

지난 8월 1일~5일 미국 알래스카 주 팔머시에서 열린 「동북아 북태평양 환경포럼(제3차모임)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처 환경정책실 조병환 실장외 이상돈(중앙대 교수), 조도순(성심여대 교수), 신창현(환경정책연구소소장)이 참석하였다. 그중 한국의 환경정책과 지역환경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한 환경처 조병환 실장의 발표문을 기획특집으로 실는다.

조병환 / 환경처 환경정책실장

## I. 서 언

인간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서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대목표의 조화속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의 조화보다는 자연환경을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인간등 모든 생물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기와 물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왔으며, 자연환경은 급속히 파괴되어 환경오염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대의 현안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대기, 수질, 폐기물과 같은 국내환경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해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여러나라를 관류하는 하천의 오염과 같은 지역적인 환경문제, 더 나아가 오존층 파괴문제, 기후변화,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자연환경현황 및 보전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주요현안 환경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역환경문제 및 지역환경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려 한다.

## II. 우리나라의 주요환경문제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 1.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문제 대두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대기, 수질, 폐기물과 같은 국내환경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해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여러나라를 관류하는 하천의 오염과 같은 지역적인 환경문제, 더 나아가 오존층 파괴문제, 기후변화,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를 거치면서 공업화에 의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국가개발시책을 추진하여온 결과 경제와 산업부문에서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추진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외시하였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의 파괴와 같은 심각한 환경상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최초의 환경담당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환경청을 1980년 발족시키고 환경관련법령 제·개정 및 각종 환경관련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계속 심화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자 정부에서는 '90년 1월 환경청을 장관급 기관인 환경처로 승격시켜 환경담당기관의 종합적인 환경행정 조정기능을 강화시켰다.

### 2. 주요 환경문제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지속적인 공업화 및 도시화로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그 첫째는 도시와 공단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로서 난방시설, 산업시

설 및 자동차의 급증('93년 627만대)이 SO<sub>2</sub>와 NO<sub>x</sub>등과 같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하고 석탄·석유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92년 82.3%) 유류중에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B-C유류의 사용비중이 높으며(33%), 전체자동차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경유차량비율이 주요한 대기오염의 부하요인이다.

둘째는 하천과 상수원의 오염문제이다. 맑은 물 공급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현재 전국주요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국 4대강 본류는 2~3급수 수준, 하천 및 지천, 소하천은 3~5급수에 머물고 있다.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각각 58%, 4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축산등 농업활동에서 야기되는 오염과 하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많은 위락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는 쓰레기의 처리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1.8kg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으면서도 감량화 및 재활용등 근원적 대책이 미흡하고 아직까지 대부분 단순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1회용품 선호, 제품수명주기 단축추세는 쓰레기 발생량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 즉, 쓰레기 처리시설을 혐오시설시하여 자기지역에의 입주를 극력 반대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과학기술수준의 양상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수준이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G-7등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 즉 개발,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근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해결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각종 환경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련 업무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및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등 각종 환경관련 계획의 수립·추진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보전은 정부만의 노력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각종 생산활동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속에서 환경보

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국민환경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 III.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현황

우리나라의 국토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길이 약 1,000Km의 한반도와 그 부근에 산재한 3,900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한의 면적은 약 99,300km<sup>2</sup>로서 이중 산림이 65%, 농경지가 21%, 기타 14%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한냉건조한 겨울과, 고온다습한 여름이 교차하는 온대계절풍 기후로써 농경에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연평균기온은 3.9℃(중강진)~14.7℃(제주), 강수량은 567mm(청진)~1,400mm(제주)의 범위에 분포한다. 산림지역은 64,640km<sup>2</sup>로 30년생 미만의 임상이 89%정도이며 임목축적량은 31m<sup>3</sup>/ha이다. 육상에는 전형적인 삼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 및 침식평야가 있으며 서해안에는 넓은 간척지 생태계가 펼쳐져 있다. 한반도 삼림생태계의 특징은 저위도의 온대에 형성된 상록활엽수림, 온대의 낙엽활엽수림, 그리고 아한대의 침엽수림이 혼재되는데 이중에서 낙엽활엽수림이 한반도의 삼림생태계를 대표하며 그중에서도 제주도 와 남해안 일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신갈나무, 소나무, 갈참나무, 서어나무가 우점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은 약 22,000여종으로 이중 식물은 8,000여종, 동물은 14,000여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

는 생물종의 일부에 불과하며 앞으로 생태계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생물종이 밝혀질 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1953년 휴전 이래 40년간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희귀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자연자원의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로 인한 산림면적의 감소, 환경오염 등으로 많은 야생생물종이 감소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야생동·식물 서식지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다. 산림훼손의 주요원인으로는 공장부지조성(22%), 골프장건설(18%), 도로건설(16%), 관광개발(16%), 농지초지(9%), 기타(23%)로 구분되고 있으며, 특히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처에서는 멸종위기종 26종, 감소추세종 35종, 희귀종 73종 등 총 179종의 야생동·식물을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는 17,000Km(섬포함)로서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리아스식해안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임해공업단지 조성등을 위한 간척 및 매립, 해안에 관광위락시설 조성등 해안개발로 우수한 자연해안이 감소되고 있다.

### IV.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보전대책

#### 1. 자연환경 보전목표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현재대와

후손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환경보전의 목표는 보존과 개발의 내실있는 조화를 통하여 자연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두고 있는데 이는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범위내에서 이용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곧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자연환경보전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처에서는 제1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기간인 2003년까지 자연환경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전국토의 5% 내외(약 5,000km<sup>2</sup>) 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며, 전국의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지역 약 4,000km<sup>2</sup>를 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림조성을 확대하여 도시녹지총량 수준을 1인당 평균 20~40m<sup>2</sup> 수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현세대와 후손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실시할 계획이다.

## 2.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관리

### 가. 자연생태계조사

국토전반의 자연환경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86~'90(5년간) 기간중 전국자연생태계 기초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러한 기초조사결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20개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정밀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앞으로 이러한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기간인 '94~2003년 기간중 50여개 지역 조사계획), 또한 전국의 자연환경에 대하여 제2차 전국조사를 1996~2000(5년간)

## 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관리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훼손방지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는 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호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이 있는데 '93년 5월 현재 자연생태계보호지역 지정현황은 표1과 같다

앞으로 1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기간중 이러한 보전지역을 전국토의 5%내외(약 5,000km<sup>2</sup>)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연생태계보전지역내에는 탐방안내소, 연구시설, 기타 자연보호, 식생복원시

지역명	위 치	면적(km <sup>2</sup> )	특 징	지정고시일자
6개소		91.25		
낙동강하구	부산시 사하구	34.21	철새도래지	'89. 3.10
지리산	전남 구례군	20.20	극상원시림	'89.12.29
대암산	강원도 인제군	1.06	고층습원	'89.12.29
대덕산·금대봉	강원도 태백시	4.20	특정야생동·식물 집단서식지	'93. 4.26
평양 백운산	전남 광양군	9.74	자연원시림	'93. 4.26
조종천 상류 명지산·청계산	경기 가평군·포천군	21.84	희귀곤충상, 자연 원시림	'93. 9. 1

설, 먹이시설, 양식시설, 인공서식처, 야생동물 이동통로등을 설치하고 자연학습원, 심신수련장등 자연과 접촉이 가능한 자연탐구시설을 추가·신설할 계획이다.

### 3. 야생동·식물보호활동의 강화

가. 야생동·식물 보호대책 추진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포획, 채취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며 최근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된 생물종(황소개구리, 베스 등)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야생동·식물의 관리는 특정야생동·식물은 환경처에서, 야생조수는 산림청에서, 천연기념물(동·식물)은 문화체육부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생태계 위태동·식물 도입규제업무는 환경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하여 야생동·식물 불법유통체계를 단절하고 대국민 홍보·계도를 유지하면서, 현장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야생동·식물 대규모 상거래 행위를 우선 단속하여 나갈 것이다.

#### 나. 국제적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

국제적으로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고 야생동·식물의 남획, 서식지 감소, 외래종 침입등으로 야생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활동으로 1948년에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이 창설되었고, 1971년에는 물새서식지인 습지의 보호를 위한 람사조약이 채택되었고, 1973년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이 채택되었고, 1992년도에는 중, 생태계 및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또한 야생동, 식물보호에 비협조적이며 불법으로 유통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에서 비난 및 무역제재 압력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가입서를 '94. 7. 9 CITES 사무국에 기탁하여 '93.10. 7 협약이 발효케 되었으며, 생물다양성협약에는 '94년중 가입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CITES 보호대상종의 관리를 강화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구생태계보전을 위한 국제기구의 회의, 각종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4. 자연녹지의 효율적 관리

#### 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유지 증진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량림의 수종개량과 천연림보육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유림을 확대하며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등 산지이용체계를 기능과 이용목적에 따라 재편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산지이용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물 공급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 수계단위로 산림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수원함양에 적합한 산림조성과 관리로 산림의 「녹색댐」기능을 제고하고자 한다.

#### 나. 녹지보전지역의 지정 확대

녹지자연도는 인간에 의한 인위적 개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물군락의 종조성을 기반으로 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하여 육지역을 10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지표이며, 환경처의 전국조사결과 전국토의 13.3%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으로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앞으로 이들 녹지자연도 8등급이

	1	2	3	4	5	6	7	8	9	10	0
등 급	시 가 지	농 경 지	과 수 원	잔 디 초 원	갈 대 초 원	조 림 지	유 령 2 차 림	장 령 2 차 림	자 연 림	고 산 초 원	수 역
남한전역 (100%)	2.7	30.5	0.5	0.3	0.8	28.1	22.8	12.9	0.4	0	1

상 지역을 대상으로 실선에 의한 녹지등급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녹지보전지역 지정대상지를 선정하여 녹지보전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이러한 녹지보전 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 5. 자연경관 보호체제의 확립

### 가. 보전중심의 자연공원 확대관리 추진

공원이용객의 증가 및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변화로 자연공원의 훼손 및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자연공원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개발하는 관행의 정착과 자연공원내의 자연생태계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연공원 확대 관리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 나. 자연환경 모니터링 운영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발굴하여 보호·감시기 위한 자연환경 감시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 희귀야생동·식물 서식지, 특산어류서식지, 철새도래 및 번식지, 해안경관 우수지역 중에서 강화도 마니산, 함양 백운산, 변산반도 난대림, 봉화 백천계곡, 격열비열도, 평창강등 94개지역을 선정하였다. 감시대상지역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정기감시 및 필요시 수시감시하고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지정하여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게 하므로써 개발을 제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고유생물종 표본을 보관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을 설립하여 국가 생태계조사시의 표본을 보관하고 생물다양성 연구를 지원하고, 생물정보자료관리·공급의 기능을 담당케할 계획이다.**

### 다. 자연해안 및 무인도 보호관리

우리나라 해안선은 자연적·인위적인 각종 요인에 의하여 서서히 변형되고 있으며 임해공단조성, 연안매립, 방파제건설, 대규모 간척사업등 해안개발로 자연해안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 2676개소의 무인도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보호 관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93. 8~'94. 7월동안 자연해안 및 무인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결과 동·식물상이 우수한 자연해안, 해역, 해중암석지등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 자연해안, 해역 및 무인도의 합리적 보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6.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

### 가. 국립생물자원보존관 설립 운영

우리나라의 고유생물종 표본을 보관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보존관을 설립하여 국가 생태계조사시의 표본을 보관하고 생물다양성 연구를 지원하고, 생물정보자료관리·공급의 기능을 담당케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내에

생물다양성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물자원조사결과의 통합정리 및 지속적인 생물목록 작성관리의 기능을 수행케 하고자 한다.

### 나. 생물권보전지역 비교연구사업 추진

유네스코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자원의 보전, 생태계, 생물다양성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등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설악산('82)과 백두산('89)이 지정되어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을 공동비교연구하여 자연보전 관련분야의 협력증진을 하고자 설악산(한국), 백두산(북한), 장백산(중국)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공동 비교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중국장백산에 대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한국, 북한지역에서 연구사업을 실시한후 일본, 몽골까지도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다.

### 7.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 추진

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계획 연구 프로젝트 구성 추진  
'92년 6월 UNCED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고 동협약이 '93.12

29부터 발효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이 국제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4년중에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 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2000—Biodiversity Korea 20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대책을 수립하여 경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생물다양성보전 국가전략(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계획 연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정부 부처,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학술단체 등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내 여러분야의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행정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환경처, 과학기술처, 산림청, 농촌진흥청, 임업연구원, 한국해양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농업유전공학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수산진흥원 등

—대학, 전문학술단체 및 전문가협회: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한국생물다양성협의회 및 학술단체(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법학회, 대한미생물학회, 한국곤충학회, 한국임학회, 한국해양학회 등)

—자연보전기구: 한국자연보존협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야생동물협회 등

이 연구팀은 먼저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관, 대학, 국가행정기관의

대표자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본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는 12개의 실무연구그룹(Working Groups)으로 나누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연구그룹의 대표자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연구그룹 보고서를 조성, 발전시키는 연구체제를 갖추고 있다.

#### 나. 생물다양성보전 국가계획 수립

우리나라의 환경처에서는 상기 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가 '94. 8월 중에 제출되며, 이를 기초로하여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유전자, 종, 서식지, 식물원, 동물원 등 생물다양성 유지와 생물자원의 경제적인 이용부문 즉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책개발, 보호지역의 기구 및 국가생물다양성기구 설치등의 모든 부분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이 될 것이다.

### V.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환경 협력방안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및 북태평양 지역은 지리적, 환경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최근들어 이 지역의 경제활동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환경의 오염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한 지역환경문제는 계절풍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과 서해 및 동해

등의 해양오염 문제이다.

지상에서 방출된 SO<sub>2</sub> 와 NO<sub>x</sub>가 기압의 영향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장거리를 이동한 후 다른나라의 생태계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바, 동북아지역에서도 북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광역 대기오염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 한반도,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본과 한반도의 오염물질이 계절에 따라 서는 해풍을 따라 중국대륙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SO<sub>2</sub> 와 NO<sub>x</sub>는 물론 분진의 장거리 이동문제는 동북아지역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공동조사 및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해양은 궁극적으로 반폐쇄해역인바, 특히 황해는 수심이 얕고 중국과 한반도의 대부분의 하천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중국은 황해연안에 공업단지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한국도 또한 최근에 서해안 시대라는 슬러전 아래에서 서해안의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에 황해의 환경은 심히 우려되고 있다. 또한 동해도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동북아해역으로서 최근 러시아에 의한 핵폐기물의 투기등이 문제된바 있다.

동북아 및 북태평양지역의 환경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인식하에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각국의 환경정보자료와 기술의 교환부터 시작하여,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점차 지역환경문제의 공동조사 및 연구,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환경규제의 공조 및 공동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환경분야별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환경오염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협력방식은 양자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자간 차원에서도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역환경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왔는데, 우선 양자간 차원에서 일본과 '93년 6월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93년 10월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환경협력 기반을 다진 바 있다.

러시아와도 환경협력협정 및 철새보존협정을 체결하여 환경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 차원에서도 '92년 10월 및 '93년 9월에 각각 일본 나가사키 및 서울에서 개최된 동북아 환경협력회의에 적극 참여한바 있으며 '92년 9월 「'92 서울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동북아 환경협력 비공식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오늘 개최되는 동북아 및 북태평양 포럼으로 발전시키는데 건인차 역할을 하였다. 동포럼은 동북아 및 북태평양 지역국

**우리나라는 최근 지역환경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왔는데, 우선 양자간 차원에서 일본과 '93년 6월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93년 10월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환경협력 기반을 다진 바 있다.**

가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주제로 선정, 상호 토의함으로써 동문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여주고 지역차원에서의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동 포럼을 포함한 동북아 환경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 VI. 결 어

이상에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지역환경협력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 환경청이 발족한 이래 주로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등 생활 환경에 관한 업무에 치중하였고 자연환경 정책추진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있었으나 '91년에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93년도에 환경처 내에 자연보전국을 신설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업무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도 생물다양성보전과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SO<sub>2</sub>의 장거리 이동에 의한 산성비는 인접국가의 자연환경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도 계절풍에 의한 SO<sub>2</sub>의 이동문제가 중요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도 지역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해역 및 북서태평양의 오염가능성과 해양생물보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양오염이 더욱 진행되기 전에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UNEP이 주관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북서태평양 해양보전산업(NOWPAP)」이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과 같은 Forum이 상호정보교환등을 통하여 지역환경협력을 증진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동 Forum이 더욱 발전되길 희망한다.

